

칼럼

인프라 투자-복지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표방하고 맞춤형 고용·복지를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 문제의 해결에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사람들은 SOC 인프라 투자는 복지가 아니며 복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속 성장 없는 국가의 복지는 오래갈 수 없다’는 시각이며,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은 서민들을 위한 가장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도 그리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인프라의 관계를 조명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코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의뢰,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해 왔다. 그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지난 7월 4일에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많은 참석자들과 토론자들 역시 경쟁력 있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을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07년 19.7%에서 2013년에는 47%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인프라 예산은 49%에서 28.9%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를 축소해도 될 만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과 2년 전 18명의 인명 피해와 수백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준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강남대로와 세종로 사거리 침수 등 커다란 수해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내에서도 공원, 녹지, 주택 등 생활 인프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를 축소한다면 낙후된 지역의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결코 복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의 디딤돌이자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노동자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대한건설협회 서울사회에서 수행한 서울시의 인프라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서울시의 VISION 2030과 중장기 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란다. CERIK